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29-3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건설 분야 공무원, 교수, 학회 회원,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AI·디지털트윈 활용…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2026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성료

광주전남 토목학회 주관…800여명 참석

첨단기술 활용 재난 대응 기술 등 공유

지역 건설업체 우수 공법·신기술 전시도

전국 각지서 방문…지역 관광·상권 기여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건설산업기술 연찬회'를 열고 건설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했다.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한 이번 연찬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건설 분야 공무원과 교수, 학회 회원, 학생 등 8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여수를 방문하면서 지역 관광은 물론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뒀다.

연찬회에서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국가인프라 대전환'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하며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AI·디지털트윈 기반 시설물 성능 예측과 유지관리(이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산사태 등 재해재난 대응 기술(김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AI·디지털트윈 활용 홍수대응 기술(김형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황재웅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역 건설업체의 우수 공법과 신기술, 생산자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다. 지역업체는 보유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고, 건설 분야 관계자와 기술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가능성을 넓혔다. 건설 분야 학생이 참여하는 '건설산업기술 골든벨'도 진행돼 미래 건설인재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연찬회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살피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비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장용채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회가 축적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전문 지식공동체로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지역 건설업체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도록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메가프로젝트 지역 기술·업체 참여 통로 확대를"



"지역의 좋은 기술이 지역에서 먼저 쓰이는 것이 상생입니다. 호남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메가프로젝트에 지역의 좋은 기술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1일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 탄소전환 시대에 대비해 녹색인프라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에 대해서 한 회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차원에서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 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이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시급한 인프라는 '가전략인프라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 예산편성, 인허가 절차, 갈등조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지역 초대형 프로젝트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이어갔다.

그는 "전력, 용수, 물류와 같은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가동될수 없다"며 "가동일자에 맞춰 언제까지 인프라 조성이 끝나야 되는지를 역산하는 스케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하루라도 멈춰서는 안되는 공급기지다"며 "호남지역의 특수성, 즉 물부족·가뭄, 농업용수 등과 관련한 수리권 분쟁 등을 고려한 위험성을 인프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장용채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전문지식 기반 지역 건설산업 발전 기여"



"축적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전문 지식공동체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장용채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6 건설산업기술 연찬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용채 지회장은 "학회가 학술 활동 뿐 아니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함께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장 지회장은 지역 대규모 프로젝트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맞춰 반도체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초순수 물에 대한 논의와 기반조성, 지반 안정화 등에도 학계와 건설업계 등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인재풀을 잘 활용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안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남광주지회에서 운영하는 119토목구조대는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현장을 찾아 문제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장 지회장은 "50여명의 기술사들이 나주와 보성, 광산구 등에서 발생한 재해 현장을 신속히 찾아 인명사고 등을 예방했다"며 "대한토목학회 본회에서도 구조대의 활약을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지회장은 "올해는 특별시 출범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다"며 "양 지역의 산업기반과 에너지 자원, 우수한 인재와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핵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